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12.6.(수)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산업정책과
담당과장	김대자 과장(044-203-4510) 김완기 과장(044-203-4550)	담 당 자	최수연 사무관(044-203-4512) 김태형 사무관(044-203-4214)

상의, 무협과 함께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 개최

- 정부, 민간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 모여 산업계 혁신전략 소통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공동으로 12월 6일(수)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를 열고, 산업계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유망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 회의에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회장, 무역협회 회장 외에 업계 대표, 컨설팅계·학계 전문가 등 20(명단 별첨)여명이 참석했다.

□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민간 주도로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 또한 향후 제조업 역량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ICBM)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과거 성공을 답습하기보다 명확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구체적 해법을 내놓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펼쳐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환경 개선,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업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정부와 함께 지원책을 정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지금이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산업이 빠르게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신산업 국제 표준 선점, 부처간 정책 일관성, 교육·기술·제도 3대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부가가치 확대 등 무역에 있어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맥킨지 한국사무소 등 3개 기관이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 대한상의는 '한국 산업의 미래와 대응과제' 발표를 통해, 신산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 1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한국 산업 활성화를 위해 ❶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규제의 틀 전환, ❷중소기업 정책을 '역량강화' 중심으로 전환, ❸민간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 ❹경제주체간 협업 등을 강조했다.

○ 무역협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수출구조 고도화 방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무역구조가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 ❶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 ❷고부가가치 신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 ❸우리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국제 역량 강화 지원, ❹중소기업의 통상애로 경감 및 수출 실적(포트폴리오) 개선, 전자상거래 확산 등 수출 구조변화 대응 지원 등을 주문했다.

○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 2025년까지 14조~33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 창출

- 한국이 ❶규제 완화와 신규 벤처 진입 장벽 제거 ❷노동시장 완화와 재교육, ❸데이터 경제 구축 등 과감하고 총체적인 체계(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참석자의 의견을 반영해 연내에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최수연 사무관(☎ 044-203-4512)과 산업정책과 김태형 사무관(☎ 044-203-42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행사 개요

□ 개최목적

○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대응 및 산업계의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민간의 전략"을 함께 논의**

□ 개 요

○ **일 시** : **'17.12.6(수), 07:00～08:30** (조찬포함)

○ **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2F)

○ **주 관**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공동주관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회장, 무역협회 회장, 주력산업 및 신산업 업계 대표, 컨설팅계·학계 등 정책자문 전문가 등 약 20명

□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7:00～7:03(3')	개회 및 기념촬영	
7:03～7:13(10')	인사말씀	· 산업부 장관 → 상의회장 → 무역협회장
7:13～7:18(5')	(발제1) 한국산업의 미래와 대응과제	·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7:18～7:23(5')	(발제2)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	·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7:23～7:28(5')	(발제3) 글로벌 혁신성장 트랜드	· 맥킨지 최원식 대표
7:28～8:25(57')	토론	
8:25～8:30(5')	마무리 말씀	· 산업부 장관

□ 참석자 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관계단체 (5)	국회		김병관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
주력산업 (9)	자동차	현대자동차	권문식	부회장
	반도체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
	조선	현대중공업	강환구	대표
	철강	포스코	오인환	대표
	석유화학	한화케미칼	김창범	부회장
	기계/로봇 /드론	두산인프라코어	손동연	대표
	기계/부품	만도	성일모	수석사장
	IoT가전	코웨이	이해선	대표
	장비제조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
융합 신산업 (5)	AI	셀바스 AI (AI기반 솔루션)	김경남	대표
	IoT	LS산전 (스마트홈)	구자균	회장
	Cloud & Big Data	와이즈넛 (빅데이터, 챗봇)	강용성	대표
	Mobile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O2O서비스)	김봉진	대표
		KT (스마트시티)	맹수호	사장
정책자문 (3)	맥킨지 서울사무소 (미국, 독일, 아시아 등)		최원식	대표
	Bates White		양성훈	principal
	연세대학교		이무원	교수

참고2 **주요 기관별 발표내용 (요약)**

1 한국 산업의 미래와 대응과제 (대한상의)

○ 한국산업의 現상황

- 신산업 관심은 높아졌지만 의미있는 대응은 不在
  실제 신산업을 추진중인 기업은 19%에 불과한 상황(상의조사 결과)

- 신산업에 뚜렷한 한국기업이 없어 세계무대에서 밀리는 모습

  * 세계 50대 스마트기업중 우리기업은 없음 (MIT Technology Review)

- 주력산업 일부는 중국의 추격 등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어려움,
  최근 경기회복기에도 반도체 등 일부 품목만 수혜

○ 우리 경제계의 실천과제

- ❶**(新기업가정신 발휘)** 연명과 단기실적 중시 → 미래성장 투자

- ❷**(기업문화 선진화)** 비효율·상명하복 → 소통과 협업, 합리적 결정

- ❸**(공정거래, 상생협력)**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준수, 中企 자강운동

○ 한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규제)** 정해진 것만 빼고 다 할 수 있게 규제의 틀을 전환

- **(중소기업 지원)** 연명 위주에서 '역량강화' 중심으로 전환

  * 중소기업 역량강화(R&D, 인력양성)지원 예산비중: 독일 92% vs 한국 26%

- **(스타트업)** '민간중심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next round 지원

  * 창업기업 3년 생존률(OECD): 스웨덴 75%, 영국 59%, 한국 38%

- **(경제주체간 협업)** 사업지연, 비효율 발생 등을 방지

② 혁신성장을 위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언 (무역협회)

ㅇ 혁신성장과 무역의 역할

- **(혁신성장과 무역)**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지형과 무역 구조가 변화되고, 각 국의 기술혁신역량, 혁신창출환경이 중요해짐

- **(무역의 과제)** 4차 산업혁명의 변화 트렌드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성장이 우리 수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ㅇ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언

①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전통 산업, 제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활용

② 신산업의 육성 및 수출산업화

- 이종 산업간 융합, 제조업과 서비스간 결합 트렌드를 기회로 고부가가치 신산업과 서비스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

③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생태계 구축

- 우리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태생부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생태계 정비,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에 집중

④ 新통상질서 대응 및 수출 구조 혁신

- 대외변수 대응력이 약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❶통상애로 경감 및 수출 포트폴리오 개선 ❷전자상거래 확산 등 수출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③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맥킨지 서울사무소)

ㅇ 생산가능인구와 고용의 감소로, **생산성 향상없이 경제성장률 유지 불능**

ㅇ 4차 산업혁명이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동력으로 대두

- 가장 급진적 변화는 기술 혁신으로 12가지 주요 기술*을 통해 '25년까지 14조~33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 창출

*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지식노동 자동화, 차세대 유전체학, 첨단 신소재, 첨단로봇, 무인 자율주행, 3D프린팅, ESS, 첨단 오일·가스·탐사·복구, 재생에너지

-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기술들을 융합·측정·연결·분석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ㅇ 4차 산업혁명 승자가 되기 위한 민간 및 경쟁국의 동향

① 민간

- 4차 산업혁명은 향후 10년 글로벌 GDP의 30%를 디지털 생태계로 연결할 전망이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선도기업들이 주도

* 중국 보험사 핑안그룹은 개방형 플랫폼·마켓플레이스 '핑안 3.0' 구축, 건강·자동차·주택 등 금융 주력 분야를 넘어 게임·식품까지 확장

② 정부

- **(싱가포르)** 3M, Rolls-Royce 등의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술기반 컨소시엄 구성하여 Digital Capability Center(미래의 공장) 운영중

- **(일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는 사물인터넷(IoT)와 재생의학 분야에 집중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유치 및 자국기업과의 협력 지원

ㅇ 한국, 과감하고 총체적인 패러다임 변화 필요

- 4차 산업혁명으로 2030년까지 230~460조원의 경제적 효과(소비자 후생 포함) 창출 가능 전망

- ❶규제 완화와 신규 벤처 진입 장벽 제거 ❷노동시장 완화와 재교육, ❸데이터 경제(Data driven economy) 구축 등 정부의 지원 필요